

농지은행, 두 가지 역점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연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입력 | 수정 2025.10.29 13:08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세대교체·농지 효율화 추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경작을 포기하는 휴경농지가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 세대는 농지 구입 부담과 우량 농지 확보의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중심으로 농지의 선순환 구조와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농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청년·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를 집단화해 효율적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농업 도입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일정 연령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를 이양하거나 매도할 경우 은퇴직불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다. 고령농에게는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영농 기회를 열어주는 상생형 정책이다.

두 사업은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령농의 생활 안정과 청년농의 기회 확대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동시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해 국가 전체의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26년 농지은행사업 예산을 총 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서선희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장은 “농지은행은 단순한 농지 관리 기관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농지은행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